

## 부부 의사소통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방식

장 문 선<sup>†</sup>                      김 영 환

마인드플러스 심리상담센터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부 의사소통패턴이 결혼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의사소통패턴과 남편과 아내의 특징적 갈등대처방식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의사소통패턴, 정서중심대처, 문제중심대처 및 자아방어기제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아내는 공통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연령, 학력, 자녀수 및 결혼기간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아내의 경우 이러한 변인과 함께 가족형태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상호 회피적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남편요구 아내철회 의사소통에 비해 아내요구 남편철회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와 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 부부 의사소통패턴, 정서중심대처, 문제중심대처 및 자아방어기제가 결혼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패턴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넷째, 남편의 경우 갈등대처방식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아내의 경우 정서중심대처와 자아방어기제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내의 부부 의사소통패턴을 정서중심대처와 자아방어기제가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상호건설 의사소통은 분노조절, 수동공격이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상호회피 의사소통은 행동화, 타협, 수동공격이, 그리고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은 긍정적 해석이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주요어 : 부부 의사소통패턴, 정서중심대처, 문제중심대처, 자아방어기제, 결혼만족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 문 선 / 대구시 중구 대봉1동 108-8 한빛빌딩 3층  
마인드플러스 심리상담센터 / FAX: 053-254-2705 / E-mail: mind-plus@hanmail.net

사회학습이론 및 체계이론에 따르면, 행복한 결혼생활은 부부간에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한다. 이들 이론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이란 “상대방에게 부정적 느낌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tuart, 1980). 부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간의 오해와 마찰이 유발되고 직접적인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는 부부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보고되는 문제이자 부부치료의 가장 주된 원인이며(Geiss & O’Leary, 1981), 결혼생활의 만족을 예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Hahlweg, Revenstorf & Schindler, 1984).

부부문제에 대해 행동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는 이론가들은 부부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기술결핍 모형(communication skill deficit model)을 상정하고 있다(O’Donohue & Croach, 1996). 이 모형은 부부가 서로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다면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상호작용에 대한 불만족과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Burlison과 Denton(1997)은 의사소통기술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중재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매우 복잡한 관계라고 하였다. 즉 의사소통 기술결핍모형의 한계점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술만을 강조한 나머지 부부가 의사소통하는 내용과 특징적인 의사소통 과정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Broderick, 1983).

반면에 체계이론가들은 행동주의 이론가들과는

달리 의사소통 기술 그 자체보다는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소통 패턴(perpetuating communication pattern)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Jacobson, 1989; Greenburg & Johnson, 1986). 특히, Christensen과 Sullaway(1984)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부간의 특징적 의사소통패턴을 상호 건설적, 상호 손상적, 상호 회피적 및 요구-철회패턴(남편 요구-아내 철회/ 아내 요구-남편 철회)으로 나누었다. 연구 결과, 의사소통패턴 중 상호 회피 및 요구-철회패턴(demand-withdrawal pattern)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Christensen & Shenk, 1991; Christensen, 1988). 여기서 상호 회피 패턴이란 배우자 모두 갈등영역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구-철회패턴이란 배우자 중 한 명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평하거나 변화를 추구하는 대화를 시도하는 반면 상대방 배우자는 대화를 끝내려고 한 다거나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대화장소를 떠남으로써 대화자체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 남편요구-아내 철회보다는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경우 역기능적 결혼생활과 더욱 관련이 깊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결혼만족에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맥락 하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의사소통의 유형화에 초점을 맞추거나(이정순, 1991),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다루거나(전귀연, 구순주, 박경란, 1998), 부부의사소통패턴과 우울 및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임승락, 권정혜, 1998), 주장성 및 공격성과의 관계(이정은, 이영호, 2000) 등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부부의사소통이 문제해결을 위한 주된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Christensen,

1987), 이들 패턴을 각 배우자의 문제해결방식 혹은 갈등대처방식과 연관지음으로써 보다 통합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갈등대처방식이란 개인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처리하고 적응해 나가는 방식으로서(최규련, 1995), 크게 갈등상황을 중식시키는 직접적 대처와 자아 개념을 위협하는 심리적 갈등이 생길 때 행하는 간접적 혹은 방어적 대처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에는 정서중심대처와 문제중심대처가 포함되고(Lazarus & Folkman, 1984) 후자에는 자아방어기제가 포함된다. 이들 갈등대처방식은 모두 문제해결, 갈등완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지만 그 방법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동안 국내 연구들은 주로 갈등대처방식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혹은 사회경제적 변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송영자, 1986; 김양희, 1986). 그러나 어떤 갈등영역에 대해 부부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은 각 배우자가 평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용하는 다양한 갈등대처방식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Boyd & Roach, 1977), 부부의사소통패턴과 갈등대처방식 및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배우자의 정서중심대처, 문제중심대처 및 자아방어기제와 부부의사소통과의 관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갈등대처방식 중 문제중심대처(problem focused coping)는 갈등을 유발하는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서중심대처(emotion focused coping)는 갈등상황 자체는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갈등상황과 연관된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갈등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무시하거나 긍정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 정서적 지원을 추구하거나 종교에 의지하는

것, 외부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체념하는 것, 자신의 고집대로 해나가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Lazarus et al., 1984). 부부문제와 갈등대처방식과의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갈등상황에 대한 정서중심대처, 문제중심대처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었다. 예컨대, Lavee와 Olson(1991)은 역기능적인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집단에서는 의사소통과 문제해결과정에서 정서중심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문제중심대처는 적게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들 대처방식과 부부의사소통패턴 및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중심대처(분노 억압, 분노 조절, 분노 표출, 고집, 타협, 긍정적 해석, 정서적 지원추구, 소극적 철수)와 문제중심대처(적극적 대처, 문제해결적 지원추구), 부부의사소통패턴 및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갈등대처방식 중 간접적 대처에 해당되는 자아방어기제와 부부문제와의 관련성을 다룬 초기 연구들은 주로 각 배우자가 유년시절 대상관계와 핵심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온 방어기제가 현재의 부부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Saul, 1979).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각 배우자가 긴장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내는 특징적인 방어기제가 결혼만족도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Gottman과 Krokoff(1989)는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각 배우자의 방어기제 중 회피와 완고함이 장기적인 결혼 불만족과 가장 직결된다고 하였다. 또한 Smith, Vivian, 및 O'Leary(1990)는 부부의사소통과정에서 정서적 방어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부정적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보다는 회피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피곤하고 지루하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반응을 지체하는 등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방식을 나타낼 때 장기적인 결혼만족과 더 직결된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껏 국내에서는 유은희(1994)가 임상적 문제를 보이는 부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회피와 억압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나 각 배우자의 방어기제와 부부의사소통패턴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토해 본 연구가 없었다. 부부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변인이 부부의사소통패턴임을 생각해 볼 때, 각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방어기제는 의사소통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지속적으로 억압과 회피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남편은 갈등상황에서 아내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방어기제 중 유우머, 이타주의, 예견과 같은 건설적인 방어기제는 상호건설적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방어기제 중 선행연구에서 결혼만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회피, 억압, 수동공격, 행동화와 결혼 만족과 연관될 것으로 가정되는 건설적인 방어기제인 유우머, 이타주의, 예견과 네 가지 부부의사소통패턴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개인의 갈등대처방식으로 정서중심대처, 문제중심대처 및 자아방어기제가 네 가지 부부 의사소통패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셋째, 이들 변인이 전반적 결혼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적, 역기능적 의사소통패턴이 무엇인지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검증해보고 각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이 이러

한 의사소통패턴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조사대상은 대구시내, 경북지역 및 부산 시내에 거주하는 부부 200쌍(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북대학교와 경북도청, 구미시청 및 경성대학교 교육 대학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부부 의사소통패턴, 정서중심대처, 문제중심대처 및 자아방어기제가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해 오도록 하였다. 설문지 배부에서 수거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되었으며, 반응누락이나 불성실한 반응 등으로 인해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2명의 자료를 제외한 186쌍(37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측정도구

####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평가

선행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인들을 선정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포함된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맞벌이 유무, 가족형태(핵가족/ 확대가족), 자녀수 및 결혼기간이 있다.

#### 결혼만족도에 대한 평가

전반적 결혼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Roach와 Frazier 및 Bowden(1981)이 제작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	176명(47.2%)
	여	197명(52.8%)
연령	20-29 세	31명(8.3%)
	30-39 세	83명(22.3%)
	40-49 세	184명(49.3%)
	50-59 세	71명(19.0%)
	60세 이상	4명(1.0%)
학력	초등졸 이하	10명(2.6%)
	중학교 졸	29명(7.8%)
	고등학교 졸	134명(35.9%)
	대학교 졸	148명(39.7%)
	대학원 졸	52명(13.9%)
맞벌이 유무	맞벌이	216명(57.9%)
	맞벌이가 아님	157명(42.1%)
가족형태	핵가족	329명(88.2%)
	확대가족	44명(11.8%)
자녀수	없음	27명(7.2%)
	1-2명	281명(75.3%)
	3-4명	62명(16.6%)
	5명 이상	3명(0.8%)
	결혼연한	5년 이하
	6-10년	47명(12.6%)
	11-15년	69명(18.5%)
	16-20년	57명(15.3%)
	21-25년	113명(30.3%)
	26년 이상	35명(9.4%)
		총 373명

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하

게 되어 있다. 총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48점에서 240점까지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7이었다.

#### 의사소통패턴에 대한 평가

부부 의사소통패턴을 평가하기 위해서 Christensen 과 Sullaway(1984)가 제작한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CPQ)"를 이정은과 이영호(200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의사소통의 세 단계(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어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리고 일어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난 뒤)동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다. 각 문항은 9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8점: 아주 그렇다)상에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에는 긍정적 의사소통인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과 네 가지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정적 의사소통에는 상호 손상적 의사소통, 상호 회피적 의사소통, 남편 요구-아내 철회 의사소통, 아내 요구-남편 철회 의사소통패턴이 포함된다. 이정은 등(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긍정 .79, 손상 .85, 요구철회 .71, 상호회피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 .80, 손상 .82, 요구철회 .76, 상호회피 .79이었다.

#### 문제중심대처에 대한 평가

남편과 아내의 문제중심대처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전경구, 김교현, 조신웅, 노명래 및 손정락(1994)이 개발한 다차원적 대처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대처척도는 문제해결 지원추구, 정서적 지원추구, 종교적 추구, 정서표출, 양보, 적극적 망각, 정서적 진정, 자기비판, 고집, 긍정적 비교, 긍정적 해석, 적극적 대처, 체념, 소극적 철수, 자체와 관련된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은 4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3점:매우 그렇다)상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하위척도 중 문제 중심적 대처 방식과 관련된 문제해결 지원추구, 적극적 대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문제해결 지원추구 .71, 적극적 대처 .89였다.

#### 정서중심대처에 대한 평가

남편과 아내의 정서중심대처방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Chon, Hahn 및 Lee(1998)가 개발한 상태 특성 분노표현 척도와 전경구 등(1994)이 개발한 다차원적 대처척도를 사용하였다.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에는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항), 분노 억압(8문항), 분노조절(8문항), 분노 표출(8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0점 전혀 아니다~3점: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다. Chon 등(1998)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5, 분노억압 .73, 분노조절 .81, 분노 표출 .74였고, 본 연구에서는 분노억압 .75, 분노조절 .80, 분노 표출 .75이었다. 또한 다차원적 대처척도에서 정서적 지원추구, 긍정적 해석 고집, 타협, 소극적 철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65에서 .89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 자아방어기제에 대한 평가

남편과 아내가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자아방어기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김재은, 이근후, 김정규 및 박영숙(1991)이 개발한 이화 방어기제 검사(EDMT)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0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허세,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 공격 행동, 투사, 전치, 부정, 통제, 억제, 왜곡 예견 합리화

해리, 신체화, 행동화, 승화, 이타주의, 퇴행, 유우머, 회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상 수동공격 억제, 예견, 행동화, 이타주의, 유우머, 회피기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5점: 아주 그렇다)상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67~.78 범위였다.

#### 자료분석

자료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단순독립 t검증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이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인, 의사소통패턴, 정서중심대처, 문제중심대처 및 자아방어기제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상관분석에서 결혼만족도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난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 상호 회피적 및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패턴에 대한 갈등대처방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 10.0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본 연구에 포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관계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의 결혼만족도 평균은 161.23(표준편차=26.79), 남편의 경우는 평균 165.46(표준편차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결혼만족도와 관계

	연령	학력	맞벌이유무	가족형태	자녀수	결혼기간	결혼만족도
연령		-.37**	.32**	-.03	.60**	.84**	-.23**
학력	-.18*		-.28**	.20**	-.34**	-.53**	.27**
맞벌이 유무	.25**	-.12		-.05	.33**	.38**	-.12
가족형태	.00	-.03	-.10		.00	-.01	.16*
자녀수	.51**	-.13	.22**	-.05		.55**	-.25**
결혼기간	.85**	-.28**	.24**	-.03	.53**		-.27**
결혼만족도	-.22**	.22**	.09	-.14	-.19*	-.26**	

\* p<.05, \*\*p<.01.

주. 대각선 아래는 남편 자료들간의 상관계수, 대각선 위는 아내 자료들간의 상관계수

=23.46), 아내의 경우 평균 159.06(표준편차=24.31)이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  $t(369)=2.58, p<.05$ .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결혼만족도와 관계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결혼기간이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고,  $r=-.26, p<.01$ ,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r=.22, p<.01$ ,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고,  $r=-.22, p<.01$ , 자녀수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r=-.19, p<.05$ . 맞벌이 유무는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174)=1.25, ns$ . 가족형태 또한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74)=1.85, ns$ . 아내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r=.27, p<.01$ , 결혼기간이 길수록,  $r=-.27, p<.01$ , 자녀수가 많을수록,  $r=-.25, p<.01$ , 연령이 높을수록,  $r=-.23, p<.01$ , 결혼만족도가 낮았으며, 핵가족일 경우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  $t(193)=2.18, p<.05$ . 맞벌이 유무는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t(193)=1.69, ns$ .

### 부부 의사소통패턴과 결혼만족도 및 갈등대처방식간의 관계

네 가지 부부 의사소통패턴과 결혼만족도, 정서중심대처, 문제중심대처 및 자아방어기제와의 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남편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변인은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이었고,  $r=.71, p<.01$ , 상호회피적 의사소통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r=-.53, p<.01$ . 또한 요구 철회패턴 중에서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이,  $r=-.48, p<.01$ , 남편요구-아내철회 의사소통보다,  $r=-.34, p<.01$ , 결혼만족도와 더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아내의 경우 역시 상호건설적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r=.76, p<.01$ , 상호회피적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56, p<.01$ . 요구 철회 의사소통에서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이,  $r=-.51, p<.01$ , 남편요구-아내철회 의사소통보다,  $r=-.31, p<.01$ , 결혼만족도와 더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패턴은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였다

표 3. 결혼 만족도와 부부 의사소통패턴 및 갈등대처방식간의 관계

	상호 건설적	상호 손상적	상호 회피적	남편요구 -아내철회	아내요구 -남편철회
분노억압	-.00(-.04)	.04(.03)	.11(.09)	.13(.05)	.14(-.01)
분노조절	.39**(-.18*)	-.19*(-.20**)	-.14(-.10)	-.01(-.16*)	-.13(-.01)
분노표출	-.17*(.00)	.21**(33**)	.13(.19**)	.13(.09)	.26**(16*)
긍정적 해석	.34**(23**)	-.29**(-.15*)	-.40**(-.13)	-.21**(-.12)	-.30**(-.13)
타협	.26**(11)	-.09(-.11)	-.23**(-.16*)	-.06(-.08)	-.11(-.05)
정서적 지원추구	.10(.05)	-.07(.14)	-.14(.05)	-.04(.07)	-.07(.01)
고집	-.02(.12)	.02(-.11)	-.08(-.12)	.07(-.02)	.03(-.15*)
소극적 철수	-.23**(-.13)	.06(.16*)	.07(.14)	.12(.15*)	.15*(.12)
적극적 대처	.45**(27**)	-.12(-.10)	-.22**(-.16*)	-.05(-.17*)	-.28**(-.15*)
문제해결지원추구	.18*(.12)	-.07(.11)	-.15*(.02)	-.07(.07)	-.11(.07)
억제	.27**(12)	-.10(-.24**)	-.11(-.19**)	.00(-.19**)	-.18*(-.16*)
수동공격	-.10(-.17*)	.16*(.25**)	.22**(27**)	.13(.22**)	.28**(19**)
예견	.17*(.14)	-.26**(-.18*)	-.27**(-.10)	.05(-.25**)	-.22**(-.10)
행동화	-.29**(-.14*)	.35**(41**)	.35**(36**)	.22**(25**)	.38**(27**)
이타주의	.28**(08)	-.04(.13)	-.20**(04)	-.09(.00)	-.22**(04)
유우머	.48**(14)	-.06(-.05)	-.22**(-.10)	-.03(-.09)	-.13(.01)
회피	-.17*(-.14)	.09(.17*)	.20**(11)	.16*(.08)	.24**(18*)
결혼만족도	.71**(76**)	-.28**(-.21**)	-.53**(-.56**)	-.34**(-.31**)	-.48**(-.51**)

\*  $p < .05$ . \*\*  $p < .01$

주. 괄호 밖은 남편 자료들간의 상관계수, 괄호 안은 아내 자료들간의 상관계수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갈등대처방식 변인들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  $r = .46, p < .01$ , 긍정적 해석,  $r = .35, p < .01$ , 유우머,  $r = .34, p < .01$  와는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행동화,  $r = -.32, p < .01$ , 소극적 철수,  $r = -.25, p < .01$  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남편의 결혼 만족도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 상호 회피 의사소통과 갈등대처방식 변인들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갈등상황에서의 행동화 경향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r = .35, p < .01$ , 긍정적 해석  $r = -.40, p < .01$ , 예견,  $r = -.27, p < .01$ , 유우머,  $r = -.22, p < .01$  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의 경우 유우머,  $r = .48, p < .01$ , 분노조절,  $r = .39, p < .01$ , 긍정적 해석,  $r = .34, p < .01$ , 이타주의,  $r = .28, p < .01$  와 높은 상관을 나타낸 반면, 행동화,  $r = -.29, p < .01$ , 소극적 철수,  $r = -.23, p < .01$  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갈등대처방식 변인들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  $r=.23, p<.01$ . 긍정적 해석,  $r=.20, p<.01$ .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분노억압,  $r=-.14, p<.05$ .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내의 결혼 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과 갈등대처방식 변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  $r=.27, p<.01$ . 긍정적 해석,  $r=.23, p<.01$ . 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수동공격,  $r=-.17, p<.05$ 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아내의 결혼 만족도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 상호 회피적 의사소통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행동화,  $r=.36, p<.01$ . 수동공격,  $r=.27, p<.01$ . 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타협,  $r=-.16, p<.05$ . 적극적 대처,  $r=-.16, p<.05$ .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각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이 부부 의사소통패턴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갈등대처방식 변인들이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배우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후 의사소통패턴 및 갈등대처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부부 의사소통패턴을, 3단계에서 정서중심대처방식을, 4단계에서 문제중심대처방식을,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 자아방어기제를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 하였다.

표 4에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편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결혼만족도의 10%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4,171)=4.48, p<.01$ . 이 중 남편의 학력이 유의미한 설명을 하였다,  $\beta=.16$ ,

표 4.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beta$	$R^2$	$\Delta R^2$	$\Delta F$
1 인구통계학적 변인		.10	.10	4.48***
연령	.01			
학력	.16*			
자녀수	-.07			
결혼기간	-.18			
2 부부 의사소통패턴		.60	.50	41.77***
상호 건설 의사소통	.34***			
상호 손상 의사소통	-.11			
상호 회피 의사소통	-.31***			
남편요구-아내철회	-.07			
아내요구-남편철회	-.10			
3 정서중심대처		.64	.04	1.85
4 문제중심대처		.66	.02	.98
5 자아방어기제		.68	.02	1.41

\* $p<.05$ . \*\* $p<.01$ . \*\*\* $p<.001$

$p<.05$ . 부부 의사소통패턴은 결혼만족도의 50%를 설명하는 강력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F(9,166)=41.77, p<.001$ . 이 중 상호건설적 의사소통,  $\beta=.34, p<.001$ . 상호 손상적 의사소통,  $\beta=-.14, p<.05$ . 상호 회피적 의사소통,  $\beta=-.31, p<.001$ . 이 유의미한 설명을 하였다. 정서중심대처는 4%를 설명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F(10, 156)=1.85, ns$ . 문제중심대처는 1%를 설명하였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F(2, 154)=.98, ns$ . 자아방어기제는 2%를 설명하였으나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F(8,146)=1.41, ns$ .

표 5에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내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결혼 만족도의 15%를 유의미

표 5.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예언변인	$\beta$	$R^2$	$\Delta R^2$	$\Delta F$
1 인구통계학적 변인		.15	.15	6.47 ***
연령	-.04			
학력	.23 **			
자녀수	-.12			
가족형태	-.20 **			
결혼기간	-.05			
2 부부의사소통패턴		.65	.51	53.68 ***
상호 건설 의사소통	.40 ***			
상호 손상 의사소통	-.08			
상호 회피 의사소통	-.22 **			
남편요구-아내철회	-.06			
아내요구-남편철회	-.19 **			
3 정서중심대처		.69	.04	2.35 *
분노억압	-.15 **			
분노조절	.13 *			
분노표출	-.13 *			
소극적 철수	-.13 *			
4 문제중심대처		.70	.00	1.04
5 자아방어기제		.74	.04	2.96 **
수동공격	-.21 ***			
억제	-.16 **			

\* $p < .05$ . \*\* $p < .01$ . \*\*\* $p < .001$

하게 설명하였고,  $F(5,189)=6.48, p < .001$ . 이 중 학력,  $\beta=.23, p < .01$ . 가족형태,  $\beta=-.21, p < .01$ 가 유의미한 설명을 하였다. 아내의 경우 남편과 마찬가지로 부부 의사소통 패턴이 결혼만족도의 51%를 설명하는 강력한 설명력을 보였다,  $F(10, 104)=53.68, p < .001$ . 이 중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  $\beta=.40, p < .001$ . 상호 회피적 의사소통,  $\beta=-.22,$

$p < .001$ .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beta=-.18, p < .001$ . 이 유의미한 설명을 하였다. 정서중심대처는 결혼만족도의 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F(10,167)=2.15, p < .05$ . 문제중심대처는 0%를 설명해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F(2, 154)=1.04, m$ . 자아방어기제는 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8,167) = 2.96, p < .01$ .

이상에서 남편의 경우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지만 아내의 경우 갈등대처방식 중 정서중심대처와 자아방어기제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한 상호건설, 상호회피,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에 미치는 정서중심대처와 자아방어기제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아내의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패턴에 대한 갈등대처방식 변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분노조절이 3%를 설명해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수동공격이 6%를 추가하였다. 그외의 변인들은 부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아내의 상호 회피 의사소통패턴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행동화가 13%를 설명해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타협 4%, 수동공격이 2%를 추가하였으나 나머지 변인들은 부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패턴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긍정적 해석이 8%를 설명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부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표 6).

표 6. 아내의 부부의사소통을 예언하는 단계적 회귀분석

준거변인	예언변인	$\beta$	$R^2$	$\Delta R^2$	$\Delta F$
상호건설 의사소통	분노조절	.27	.07	.07	14.92 ***
	수동공격	-.14	.09	.02	4.21 *
상호회피 의사소통	행동화	.36	.13	.13	29.25 ***
	타협	-.19	.17	.04	7.99 ***
	수동공격	.15	.19	.02	4.77 **
아내요구 -남편철회	긍정적 해석	-.27	.08	.08	15.59 ***

\* $p < .05$ . \*\* $p < .01$ . \*\*\* $p < .001$

## 논 의

본 연구는 부부 의사소통패턴이 결혼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의사소통패턴이 남편과 아내의 특징적 갈등대처방식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의사소통패턴 이외에 정서중심대처, 문제중심대처 및 자아방어기제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하기로 하겠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 아내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권정혜와 채규만(1999), 최규련(1995)이 보고한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는 이민식과 김중술(1995)의 결과와는 불일치 하는데, 각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측정도구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나이가 많고 자녀수가 많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아내의 경우 학력이 높고 핵가족일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반면, 남편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고 자녀수가 많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서수경, 이정덕, 1991; 이정은, 이영호, 2000). 연령과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직장관련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부부 상호간의 지지적 관계는 약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부부 의사소통패턴과 결혼만족도와의 관

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편과 아내 모두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 반면, 상호 회피적 의사소통이 결혼불만족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적, 방어적 태도가 장기적인 결혼 불만족과 가장 직결된다는 Gottman과 Krokoff(1989)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상호 손상적 의사소통보다 상호 회피적 의사소통이 결혼 불만족과 더 직결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치료에 함의점을 제공한다. 즉, 부부치료시 상호 손상적인 의사소통과정(경멸감, 폭언, 인신공격 등)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완고함, 방어, 철회 등과 같은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치료적 개입이 결혼 생활의 만족을 증대시키고, 부부간의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이끄는 데에 보다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내가 주로 요구적인 태도를 취하고 남편은 회피하는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패턴이 반대 패턴보다 결혼만족과 더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결과 또한 Heavey 등(1993)의 결과 및 Christensen(1987, 1988)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패턴을 나타내는 부부는 어떤 문제에 대해 문제 중심적인 대처를 하기가 어렵고, 아내는 대화를 시도하며 요구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남편은 아내의 시도를 무시하거나 회피함으로써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내의 불만은 증폭되어 더더욱 요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또 다시 회피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패턴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Christensen & Heavey, 1990). 첫째, 개인차적 관점(individual-differences view)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각기 다른 성 역할 사회화를 이유로 제기한

다. 즉 여성은 성 역할 조건화 과정에서 보다 친화적인 성향과 다양한 정서 표현을 미덕으로 내재화하였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거부에 민감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불안을 심하게 경험하는 반면, 남성은 강하고 독립적이어야 함을 내재화하였기 때문에 관계에 깊이 개입하거나 정서 표현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요구철회 의사소통패턴에서, 관계에서의 친밀성을 더욱 원하는 사람은 요구자의 역할을 맡고 자율성을 더욱 원하는 사람은 철회자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Rubin, 1983). 둘째, 사회 구조적 관점(social structural view)에서는 결혼 후 나타나는 남편과 아내간의 사회 구조적 지위 차 때문에 아내는 요구사항이 늘어나게 되고, 남편은 보수적이고 철회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아내는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되고 변화를 원하지만, 남편은 지위상의 큰 불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변화를 위한 아내의 요구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Jacobson, 1983).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가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 부부 의사소통패턴, 정서중심대처, 문제중심대처 및 자아방어기제가 결혼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전체변량의 10%,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의사소통변인의 설명력은 50%로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그밖의 갈등 대처방식들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 아내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15%, 의사소통변인이 51%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었으며, 문제중심대처는 유의미한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남편과는 달리 정서중심대처 4%, 자아방어기제 4%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 공통적으로 의사소통패턴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이정은, 이영호, 2000),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변인들보다도 의사소통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남편과는 달리 아내의 경우 정서중심대처와 자아방어기제와 같은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앞서 Rubin(1983)이 제기한 개인차적 관점으로도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화적 성향과 정서적인 민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감정적 변화에 보다 민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보다 미묘하게 방어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묘한 정서적 차원과 그에 대한 방어적 노력이 결혼생활에서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추후연구에서 남편과 아내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겠다.

아내의 경우 이들 갈등대처방식 중에서 분노억압, 소극적 철수, 억제, 수동공격과 같은 갈등회피변인들이 결혼불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었다. 또한 남편의 경우에도 비록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에서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해 주진 못했지만 부부의사소통패턴과 갈등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호회피적 의사소통의 경우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거나 타협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며 수동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문제를 호소하는 집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회피와 억압이라는 유은희(1994)의 결과를 지지해 주며,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방식을 나타내는 경우 장기적인 결혼 불만족

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Smith 등(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넷째,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한 정서중심대처와 자아방어기제가 아내의 부부 의사소통패턴을 얼마나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노를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표출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조절하고 수동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지 않을 때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문제 상황에서 충동적인 행동화 경향이 강하고, 양보하거나 타협하려는 태도가 없고,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상호 회피적 의사소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긍정적 해석을 하지 못할수록 아내요구 남편철회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면 결혼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많아지고, 이를 남편에게 요구하는 성향을 보일 것이다. 남편의 경우에도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의사소통방식과 갈등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에서 상호회피 및 요구 철회 의사소통은 아내에서처럼 행동화 경향, 수동공격, 반이타주의, 고집, 비타협적 자세 등과 관련되었다.

특히, 남편과 아내 모두 행동화 경향, 수동 공격적 경향이 강하고 양보나 타협 경향이 부족할수록 상호 회피적 의사소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만한데, 이는 내면에 공격성향과 충동성향이 있으면 아예 상대방과 부딪히려 하지 않고 대화 상황이나 갈등 장면을 회피하면서도 배우자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서 종국적으로는 상호간의 신뢰가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소통패턴이 나타날 경우에는 단지 상호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된 행

동적 개입을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측면을 치유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공격성향을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배려의 증진, 그리고 상호간에 타협과 양보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개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능적, 역기능적 부부 의사소통패턴을 확인하고, 이들 패턴과 다양한 갈등대처방식이 어떠한 상호 관련성을 갖는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사소통패턴 각각을 설명할 수 있는 갈등대처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각 의사소통패턴과 연관된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이러한 기제를 고려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의를 갖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우선, 지역사회 내에서 부부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제 임상장면에서 볼 수 있는 역기능적 부부집단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방식과 개인특성변인들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패턴을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평가하였기 때문에 실제 부부간의 의사소통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관찰평정도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유형화하고, 이들 의사소통과 갈등대처방식 및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 의사소통패턴과 각 배우자의 갈등대처방식이 실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구조 방정식 등을 이용하여 이들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단일 모형 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도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김양희 (1986). 한국 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은, 이근후, 김정규, 박영숙 (1991). 이화방어 기제검사. 서울: 하나의학사.
- 유은희 (1994).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 가족상담 교육 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 연구 보고서, 1, pp.40-53.
- 서수경, 이정덕 (1991). 부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존감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기정학회지: 29(2), 199-215.
- 송영자 (1986). 부부간의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식, 김중술 (1995). 부부관계 적응척도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91-299.
- 이정순 (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임승락, 권정혜 (1998). 우울증상이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7(2), 17-31.
- 전경구, 김교현,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1994). 다차원적 대처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1), 114-135.
- 전귀연, 구순주, 박경란 (1998).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족 복지연구, 2, 1-23.

- 최규련 (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1-14.
- Boyd, L., & Roach, A. J. (197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differentiating more satisfying from less satisfying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0-551.
- Broderick, C. B. (1983). *The therapeutic triangle: A sourcebook on marital therapy*. London: Sage.
- Burleson, B. R., & Denton, W. H.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marital satisfaction: Some moderating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884-902.
- Christensen, A. (1987). Detection of conflict patterns in couples. In K. Hahlweg & M. J. Goldstein (Eds.), *Understanding major mental disorder: The contribution of family interaction research* (pp. 250-265). New York: Family Process Press.
- Christensen, A. (1988).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s in couples. In P. Noller & M. A. Fitzpatrick(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pp. 31-52). Philadelphia, PA: Multilingual Matters.
- Christensen, A., & Sullaway, M. (1984). *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Department of Psychology, Los Angeles.
- Christensen, A., & Heavey, C. L. (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3-81.
- Christensen, A., & Shenk, J. L. (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al, and divorcing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458-463.
- Chon, K. K., Hahn, D. W., & Lee, C. H. (1998).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K):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3(1), 18-32.
- Geiss, S. K., & O'Leary, K. D. (1981). Therapist ratings of frequency and severity of marital problems: Implications for resear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515-520.
- Gottman, J. M., &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 Greenberg, L. S., & Johnson, S. M. (1986). *Emotionally focused couples therapy*. *Clinical handbook of marital therapy* (pp. 253-276). New York: Guilford Press.
- Hahlweg, K., Revenstorff, D., & Schindler, L. (1984). Effects of behavioral marital therapy on couples'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553-566.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Jacobson, N. S. (1983). Beyond empiricism: The politics of marital therap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1, 11-24.
- Jacobson, N. S. (1989). *The politics of intimacy*. *Behavior Therapist*, 12(2), 29-32.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McGraw-Hill
- Levee, Y., & Olson, D. H. (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 Family*, 53(3), 786-798.
- O'Donohue & Croach, J. L. (1996). Marital therapy and gender-linked factors in communic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2, 87-101.
-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Rubin, L. B.(1983). *Intimate stranger: Men and Women together*. New York: Harper & Row.
- Saul, L. J. (1979).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 in Marriag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Inc.
- Smith, D. A., Vivian, D., & O'Leary, D. (1990). Longitudinal prediction of marital discord from premarital expressions of affe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790-798.
- Stuart, R. B.(1980). *Helping couples change; A social learning approach to marital 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원고접수일 : 2001. 10. 22.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 25.  
게재결정일 : 2002. 2. 7.

K C I



## Relations between marital communication patterns and conflict coping strategies

Mun-Seon Chang

Young-Hwan Kim

Mindplus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marital communication pattern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influence of conflict coping strategies on functional, dysfunctional marital communication patterns. For this purpose, marital satisfaction, couple communication pattern, emotion focused coping, problem focused coping and ego defense mechanism were measure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arital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various demographic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children, education, marital durations, family size(for wives), and age. (2) Marital satisfaction positively related to constructive communication pattern, whereas negatively related to avoidant and demand-withdraw pattern. (3) In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was not influenced by the conflict coping strategies. Whereas in wives, marital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emotion focused coping and ego defense mechanism. (4) In wives, anger control, passive-aggressive behavior influenced to constructive communication pattern and acting out, passive-aggressive behavior, compromise influenced to avoidant communication pattern. Wife demand-husband withdraw pattern was influenced to positive interpretation. (5) Finall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marital communication patterns. emotion focused coping. problem focused coping. ego defense mechanism. marital satisfaction